道德 倫理的 信과 宗教的 信에 관한 硏究

安 鍾 沄 *

目 次

머리말
緖論
本論
Ⅰ. 道德 倫理的 信
1. 孔子의 信思想
1) 義理의 信
2) 人間·社會 健康信號德으로서의 信
3) 敎育 基本指針으로서의 信
4) 政治 基本指針으로서의 信
5) 忠信의 意義
6) 人性으로서의 信
2. 老子의 信思想
Ⅱ. 宗敎的 信
1. 有神論的 宗敎의 信
2. 無神論的 宗敎의 信
結論

머 리 말

이번 論文은 처음으로 '註'를 달지 않은 論文을 쓰게 되었다. 그것은 語不成說이라 할 것이니, 學術論文은 隨筆이나 小說 獨白이 아닌 이상 根據없는 주장은 獨斷일 것이므로 반드시 근거를 밝혀야 하고, 그것이 註로 證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學者의 글을 참조하였음을 誇示라도 하듯 脚註를 많이 달아, 그 番號가 短篇論文에서 百 몇 十을 넘을 경우, 讀者를 얼마나 번거롭게 하며 불편할 뿐 아니라 글쓴이가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學者로서의 所信이 애매하여진다.

論文 專門家의 한 사람으로 註를 달지 않은 것은 主題가 '信'에 관한 硏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究인바, 筆者가 寡聞한 탓으로 '信' 單字를 主題로 한 著書나 論文을 아직 접하지 못하여 '信'에 관한 깊은 硏究書로 註解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란다.

信이 그만큼 學界와 거리가 있는 槪念이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儒學에서는 信을 五常 즉 仁·義·禮·智·信으로 崇尙하고 있으며, 孔子와 같은 大敎育者는 四大敎育方針으로 文·行·忠·信을 내세우고 있고, 孔子는 言行錄으로서의 論語에 '信'을 19回나 言明하였음을 볼 때 얼마나 所重한 德目인가 짐작할 일이다.

그래서 孔子 한 분의 信論만 하여도 短篇 아닌 中篇論文이 넘어 孔子를 통해서 '信'을 알아보자 하여 대부분 論語를 引用하여 굳이 註欄을 만들어 註 1) 2) 3)…의 번거로움을 주지 말고 本文에 原文과 解說을 썼다.

물론 論語 이외에 他書를 이용할 때는 出處를 밝혔고, 孔子의 信思想과 對照가 되는 信思想으로서는 老子의 信思想이겠기에 老子 道德經 全篇을 살펴 보았다.

大巡眞理會 典經에서는 學術的으로 信을 硏究할 구체적 資料가 없어 信條의 三要諦로서의 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先聖의 敎示를 통해서 普遍妥當한 信의 原理를 추구하였다.

緖 論

'信'이라는 漢字를 우리말로 해석하라면 '믿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말 '믿음'이 漢字 '信'의 全部인가 할 때 首肯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믿음'과 '信' 意味世界의 廣狹의 차이가 있고 論理學的으로는 類槪念과 種槪念, 上位槪念 下位槪念으로 分類함으로써 曖昧한 槪念과 意味論이 明晳하여진다.

한 例를 들어 '사랑'이라 할 때 父母가 子女를 사랑하는 것과 聖者가 人類를 사랑하는 것과는 高下 廣狹의 차이가 天과 地만큼이나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사랑은 거룩하다」라는 命題의 價値는 同等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라」「사랑한다」는 命題는 廣愛인지 狹愛인지, 높은 사

랑인지 낮은 사랑인지 千態萬象의 사랑을 分揀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實態로는, 微生物들로부터 昆蟲들 下等動物의 암컷들과 수컷들의 사랑은 어찌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宇宙의 生成攝理로 陰陽이 和合하는 實相 中 하나도 微物의 微愛인 듯 하면서 宇宙愛의 一面인 것이다.

이렇게 宇宙의 生成攝理를 總體的인 사랑 즉 '總愛'라 한다면 全森羅萬象 各者마다의 사랑 즉 '各愛'가 있게 마련이다.

이제 '信' '믿음'의 경우 또한 總論的 信 즉 總信 大信이 있어서 큰 믿음이 있고, 各論的 信이 있어서 작은 믿음이 얼마든지 있겠다.

그러나 '信'과 '믿음'이 완전 同義槪念인가 할 때 문제가 있다.

漢字의 '信'과 한글의 '믿음'이 一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明白히 判定하여 주는 言語는 英語로써 한글의 '믿음'은 'belief'요,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굳게 是認하고 信賴하여 信任 信用할 때 '믿음'이라 하므로 'trust'며 'confidence'편의 의미가 主된다.

漢字의 '信'의 경우 그 構造가 '人'字와 '言'字로 合成된 것을 보면 人間社會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자면 言語로 各者 意思를 발표하여 自己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公開함을 나타내는 文字이다. 한글의 '믿음'과는 語意의 方向이 다름을 느끼게 한다.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공개했으면 그렇게 실천할 것이요 履行치 않으면 '不信者'가 된다는 뜻의 文字이다.

그러므로 '信'은 人間으로써 일단 言約을 굳게 했으면 절대로 違反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의 글자이다.

이러한 '信'은 곧 '義理'를 지키는 意志와 通해서 '信義'가 信의 本意라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信'은 英語로도 'belief'가 아니라 'faith' 'fidelity' 'sincerity' 'justice;가 主된 뜻이다.

그렇다면 漢字로서 '믿음' 單字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英語의 경우 'take'같은 動詞는 自·他動詞 合해서 20餘個의 뜻이 있듯 漢字 '信'의 경우 名詞 動詞 합해서 10餘個의 뜻이 있는 가운

데 名詞로서 '믿음'의 뜻이 있다. 主된 뜻은 ①②번의 자리를 지켜서 會意文字는 특히 ①②번의 자리가 전체를 代表한다.

그래서 漢字로 '믿음' '宗教的 믿음'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信仰'이라 複合語를 쓰고 있다.

'仰'은 '우러러 볼 앙'字이므로 '信仰'은 '높은 對象이 實在함을 믿고 우러러 섬김'을 뜻한다.

이러한 '믿음'은 먼저 높은 對象이 實在한다는 前提條件이 成立되고서 믿음이 發生한다. 물론 對象이 實在하는가 不在한가 그것도 믿음의 문제요 事實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宗教에서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心象事**라 할 것이다. 그래서 信仰의 對象인 絶對者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宗教人이 되는 것이요 絶對者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非宗教人으로 갈라진다.

여기 宗教의 自由가 있고 信仰의 自由, 믿음의 獨特性이 있다.

純韓國語인 '믿음'은 이러한 宗教의 自由 信仰의 自由로서의 '믿음' 뜻이 가깝다.

그 반면 '信'의 原意로서의 '人' '言'은 宗教性이 희박한 것을 어찌할 수 없다.

語意가 字의 構成으로 形成하였으므로 表意文字 文化圈의 言語와 概念의 生理라 하겠다.

차츰 言語가 多意化하면서 一字 多意하여 '信'字 역시 ③④⑤…로 확대됨을 알아본다.

〔信〕 古字 仜訫

① 믿을 신(不疑). 의심하지 아니하다〔孟子・盡心下〕盡信書 則不如無書.

② 성실할 신(誠). 미쁘다. 믿음성 있다.〔論語・學而〕與朋友交而不信乎.

③ 따를 신(從). 신임하다.〔論語・顔淵〕足食足兵民信之矣.

④ 참으로 신(的也). 진실로.〔左傳・昭元年〕子晳信美矣.

⑤ 맡길 신(任意). 하는대로 맡겨두다.〔荀子・哀公〕故明主任計 不信怒.

⑥ 부신 신(符也). ㉠ 증거로 삼을 인신(印信). 신표(信標).〔墨子・號令〕

大將使人行 守操信符. ㉡ 증거. (老子・21] 其精甚眞, 其中有信.

⑦ 사신 신(使者). 공문 등을 전송하는 사람. [史記・韓世家] 發信臣 多其車.

⑧ 소식 신(消息). 편지. [太玄經・應] 陽氣極于上陰信萌乎下.

⑨ 이틀밤 잘 신(再宿). [左傳・莊3] 凡師一宿爲舍再宿爲信.

⑩ 비상 신(砒霜). 독약의 일종. [聊齋志異・眞生] 賣解信藥.

⑪ 알 신(知道). 헤아려 알다. [淮南子・氾論] 乃始信於異衆也.

⑫ 펼 신(伸直). 굽은 것을 펴다. [易・繫辭下] 尺蠖之屈 以求信也.

⑬ 말할 신(申也). [穀梁傳・隱元年] 信道而不信邪.

⑭ 몸 신(身也). [周禮・春官 大宗伯] 侯執信圭. 〈注〉 信 當爲身 聲之誤也.

〈大漢韓辭典 敎學社 1998年 9月刊〉

이 外에 다른 辭典에는

⑮ 조수 신(潮汐・潮水). 이라 하고, 「其起落大小之信 亦如之」 〈名山記〉라 함.

⑯ 몸 신이라 하고, 身과 같음. 「侯執信圭」 〈周禮〉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82年 刊〉

이와 같이 여러 뜻이 있다.

'信'한 字 속에 10餘個의 뜻이 있음을 알았으나, 한 가지 사실은 韓國語의 '믿음'이나 英語의 'belief'에 해당하는 語彙나 文字는 '信'한 字 뿐이요, 그 속에 ①은 '不疑'로 시작하여 ②③…其他 즉 '誠' '從' '眞' '身' '潮'의 뜻까지 있다. ②③…의 뜻은 他 字로 표현할 수 있으나 ①의 '信'은 漢字 數千數萬이 있다해도 代字할 文字가 없다는데 '信'의 固有語意가 있는 것이다. 결코 韓語 '믿음'과 一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嚴格히 말해서 各 나라 民族의 思想 感情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表現으로서의 言語도 번역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主題 '信'에 관한 硏究를 韓語 '믿음'으로 했을 때 宗教的 '믿음'과 倫理 道德的 '믿음'을 분리해서 論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움을 앞서 밝혀둔다.

'믿음'이라는 韓語는 그 語源이 倫理 道德이 발생하기 以前 原人時代에 弱者 人生이 大自然과 巨獸의 위력이 두려워 生命을 의탁하고자 絶對者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믿음'이라는 言語가 생겼을 것이므로 宗敎的 믿음 單意로 출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은 韓語 '믿음'이 아닌 漢字 '信'의 ①번 즉 '人'과 '言' 會意的 字意로 信論을 展開하기로 하고, 아울러 末尾에 宗敎的 信을 結付하기로 한다.

本 論

'信'을 硏究하기 위해서는 그 主意를 中心으로 그 字가 우리 人間生活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살펴야 할 것이다.

緖論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信'字에는 '符'의 뜻이 있고 '印'意 '使者' '再宿' '砒霜' '伸' '身' 심지어 '潮'의 뜻이 있다 해서 어떻게 本意와 관련이 있는가 따지려는 의사는 없다. 그 보다는 '信'을 소중한 實踐哲學 德目으로 敎育한 大敎育者의 見解를 살피는 것이 크게 有益할 것이기에 집중적 고찰을 하기로 한다.

Ⅰ. 道德 倫理的 信

1. 孔子의 信

論語에 '信'이 擧論된 것이 27번이고 보면 얼마나 孔學에서 중요시하였는가 짐작할 일이다.

'信'을 硏究하는 자리에서 孔子를 첫째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27번의 信論중에서 4번은 弟子 曾子와 有子 子夏의 말이나 그들의 말도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견해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曾子 有子 子夏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曾子曰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學而)

曾子 말씀하기를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세 가지 반성하는 바, 남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정성을 다하였던가, 친구들과 사귈 때 信義를 지켰던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익히지도 못하면서 전하지는 않았던가 함이다.

여기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은 「吾日三省」의 「三」이 「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의 셋인가, 이 세 가지를 세 번 반성한다는 것인가, 즉 三條項인가 三回의 三인가 문제가 된다.

忠·信·習이 三個項이어서 三이라 할 수 있겠고, 중요한 일이어서 두 번 반성하기도 부족하여 세 번까지 신중을 되풀이하겠다는 見解, 선택의 자유에 一任할 밖에 없을 것이다.

孔子의 道를 萬歲에 傳할 曾子로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忠·信의 소중함으로 파악함이다.

「子夏曰賢賢易色, 事父母能竭其力, 事君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學而)

子夏가 말씀하기를 賢明한 사람을 접대하기를 美色人을 반기듯하고, 父母를 섬기기에 온갖 힘을 다 할 것이며, 임금을 섬기는데 있어서는 몸을 바쳐야 할 것이요,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는 말을 하는데 信實性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면 비록 學問을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반드시 말하겠다고 하였다.

學問이 무엇인가? 곧 옳은 사람이 되겠다는 人間 됨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옛날이나 現今도 같이 人間되겠다는 學問을 배운 者들도 虛名無實한 僞善者들이 너무나 많다.

오히려 學問이 많다는 者일수록 不實하고 人間假面을 쓴 僞善者가 되어가는 것을 지적한 子夏의 말이다. 그것이 學問을 배우고서 學問을 背信한 反孔門之徒임을 간접적으로 말함이다.

言行一致하는 것이 信의 眞意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人間社會에서 서로 교섭하는 平面的 人間關係를 朋友라 한다면 옳은 社會가 될 것인가 欺瞞

社會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귀는 사람들이 一言半句 거짓이 없어야 믿을 수 있는 社會 正義社會가 된다.

「子夏曰君子信而後 勞其民, 未信則以爲厲己也. 信而後諫, 未信則以爲謗己也,」(子張)

子夏 말씀하기를 君子는 信賴를 받고 백성을 부리는 것이요, 만일 信賴를 받지 못하고 부리면 자기들을 가혹하게 부린다고 하게 된다. 임금에게 諫하는 것도 信任을 얻은 뒤에 諫할 것이요 信任을 얻지도 못하고 諫하게 되면 임금을 비방한다고 하게 된다.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學而)

有子 말씀하기를 言約에 義理가 있다면 실천해야 한다.

'信'은 眞情이요 本心이 通하는 상태를 이름이다. 그래서 '信'을 '편지' '書信' '消息'이라는 뜻이 있게 된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겠다. 書信은 眞心을 告白해야 받는 사람도 感動해서 그 쪽 眞心을 유발하여 兩方의 眞心이 交流하므로써 아름다운 人情社會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도 信義社會가 조성되어야 治者 被治者의 紐帶가 結束됨을 알겠다.

論語에 나오는 27回 信論 가운데 이상 4回의 弟子 信論은 끝냈다. 20回 信論은 모두 孔子의 말씀인바 (기타 2回는 副詞 '信乎'요, 1回는 '堯曰…信則民任焉'뿐) '信'을 어떻게 보았는가 살피기로 한다.

多意的 '信'이 孔子에게서도 多樣하게 解明되는지 유의하면서 詳察한다.

1) 義理의 信

孔子께서 人間으로서의 基本 處世를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子曰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學而)

孔子 말씀하시기를 弟子들은 집에 들어가면 父母께 孝道하고 밖에 나오면 모든 이들에게 화목하며 每事에 삼가 信義를 지킬 것이요 모든 사람들을 아

낄 것이며 어진 이는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 아울러 能力이 있는 限 學問을 익히기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孝·弟·謹·信·愛·仁을 敎示한 바, 基礎人間의 길을 밟아 仁者의 境地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信은 六德 가운데 四番目 될 만큼 높은 德임을 알 수 있다.

왜 信이 그처럼 必須 德인가 알아본다.

「子曰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爲政)

사람으로써 信이 없다면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마치 큰 수레에 끌채 끝 멍에 輗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 끝 멍에 軏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수레는 크고 작고간에 물건이나 사람을 태우고 끌고 가는데 目的이 있는 바, 끌채 끝에 멍에가 없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 비유하여 말하였다.

현대 自動車에 비유하면 車를 움직이게 하는 油類가 떨어져 停止한 車에 짐을 적재하던가 사람을 태우는 것과 같다.

人間이 人間답게 살아가자면 義理를 지켜 人道를 脫線하지 말고 順行해야 한다. 人道는 모든 사람들이 公約한 公路이므로 마치 數千萬 車들이 一時도 쉬지 않고 通行하는 大路와 같다. 그 길을 交通法規를 어기지 않고 順行하는 것이 公共約束을 지키는 '信'인 것이요 '信行' '可行'인 것이다.

現代와 같이 機械文明이 크게 발전한 時代에 있어서는 大型 交通手段을 개발함으로써 크게 便利를 제공하나 交通法規라는 '信'을 嚴守할 따름이요 추호도 이탈하는 '不信'은 嚴禁이다.

法이라고 하는 '公信'을 지키면 生命의 安全을 보장할 수 있고, '公信'을 지키지 않으면 곧 死境으로 추락한다는 明白한 事實을 銘心해야 한다.

現代의 交通法規라는 信은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數十名 數百名까지 罪짓지 않고도 희생시키는 悲劇을 야기시킨다는 事實을 볼 때 現代의 信이 더욱 峻嚴하다 아니 할 수 없다.

孔子는 이미 信을 死守할 것을 强調하였으니, 人間답게 살지 못한다면 죽음을 택할 것이요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最善을 다하여 人道를 지키라 하였

다.

『子曰朝聞道, 夕死可矣.』(里仁)

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恨이 없다는 것이 孔子이시다.

『子曰篤信好學, 守死善道.』(泰伯)

孔子 말씀하시기를 篤實하게 信義를 지키며 學問하기를 좋아할 것이요 착한 道를 죽음으로 지킨다고 하였다.

不信으로 살기보다는 正義롭게 살다가는 것이 참된 人間의 生涯를 지키는 것이기에 「朝聞道 夕死可矣」 라 하고 「守死善道」라 하였으니, 오늘날 交通法規의 信을 死守하는 사람은 生을 保全하고, 違法 能事者는 必死의 事例가 立證한다.

2) 人間·社會 健康信號德으로서의 信

『子路曰願聞子之志. 子曰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公冶長)

어느날 孔子께서 弟子들과 對談할 때 각자 소망을 말해 보라 하여 듣고 나니 子路가 先生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하였다.

孔子말씀에 老人들은 편안하게 하고, 친구들과는 信義가 두텁게 지내며, 少年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따르게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매우 平凡한 소망 같으면서 人間의 삶의 哲學이 거기에 있다.

人生으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다 老死한다면 幸福한 一生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人生으로 산다는 것을 치열한 生存競爭의 鬪士로 생각, 惡戰苦鬪하는 삶의 모습을 勇敢하다고 찬양할 수는 없다. 오늘날 經濟戰爭時代를 당해서 삶을 反省하면서 마음의 安定을 찾고 人 對 人을 相敵으로 對立할 것이 아니라 相生 相和의 同志로 相愛할 때 生存鬪爭場이 아니라 相扶相助하여 同樂하는 樂園이 따로 없다.

世界를 苦海로 저주할 것이 아니라, 人間社會에서 마주하는 同年輩들은

모두 兄弟들로서 和睦하고, 年上者들은 人生先輩로서 恭敬하여 서로 아끼고, 少年들은 귀여운 새싹들이기에 푸른 人生花園이라 植物 꽃이 아닌 人生꽃이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人生觀이 아니겠는가!

孔子의 平凡한 人生哲學 談論에서 人生界를 苦海로 끝낼 것인가 樂園의 主役이 될 것인가가 깃들어 있다.

다음 社會 上部 指導層이 禮·義·信 道德的이라면 上淸 下淸으로 理想社會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살기를 소망할 것이라 하였다.

「子曰…上好禮則民莫敢不敬, 上好義則民莫敢不服, 上好信則民莫敢不用情, 夫如是則四方之民, 襁負其子而至矣.…」(子路)

윗사람이 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義理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信義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誠宜롭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孔子의 弟子 樊遲가 곡식농사 짓는데 관하여 문의하니 孔子가 말씀하기를 그것은 농사 짓기에 늙은 農夫가 잘 알 것이니 그들에게 물어볼 것이라 하였다. 다시 채소농사에 관하여 문의할 때 그 또한 늙은 채소농사꾼이 잘 알 것 그들에게 물어 보라 하였다.

그리고 樊遲가 자리를 뜨자 孔子 말씀하기를 「樊遲는 小人이로구나.」하며 위 말이 이어졌던 것이다.

農事는 農夫가 하고 學問은 學者가 하여 사람들을 敎化하므로써 옳은 길로 引導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善導하는 것이 그 몫인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孔子에게 農事敎育까지 請願하니 小人이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農夫들이 農事를 지어 萬民을 먹고 살게 하고, 學者들이 學問하여 高級人間을 양성하야 高級文化社會를 조성하는 것, 原理는 같고 각자 職能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모든 이들이 指導層의 示範에 感化되어 禮義 바르고 義理가 투철하며 信宜가 밝은 社會를 조성한다면 仙境을 달리 찾을 것이 아니라 거기가 아름다운 人間界에 틀림없다. 人間이 萬物의 靈長이라고 하면서 無禮하여 野蠻스럽고, 義理가 없어 他動物과 구별할 수 없으며, 信宜가 없어 詐欺漢들이 많

은 社會는 不幸한 世界이다.

孔子는 禮·義·信을 三大 必須 德으로까지 내세운 의지, 現代人들로서도 반성을 촉구하기 충분하다 하겠다.

禮와 義의 德은 人生 各者가 自身 一身이 갖춰야 할 人格 要素라 한다면 信은 人格 직접 要素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信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는 時間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守信하는가? 背信하는가? 는 이 時間 이 空間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時間과 空間이 경과한 后에 나타나서 時間과 空間이 密着하는 '人間됨'으로서의 人格要素인 禮와 義와는 다른 바 있다.

그러나 信은 人格의 直接要素 아닌 間接要素인 대신 社會와 自己 이외의 他人들에게 至大한 영향을 끼친다는데 信이 重大한 德임을 알아야 한다.

信은 文字構造 '人' '言' 그대로 人間들 사이에서 뜻을 發表할 필요가 있어 發言했다면 이미 他人들에게 言約을 公言하였으므로 꼭 實踐해야 '信'이 있다.

言約을 實踐한 사람은 信人으로서 人格者가 되지만 實行하지 않으면 背信者로서 人格者社會에서 脫落한다.

이 背信者는 人格者社會에서 一身만 失格者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던 關係圈 人間들에게 失望을 줄 뿐 아니라 被害를 준다. 經濟社會에서는 物質的으로 大·小가 얼마든지 확대되어 金錢的으로는 數千億원대의 피해를 줄 수 있다.

倫理 道德社會에서는 背信者가 人間으로 살아갈 의욕을 좌절시켜 人間界를 絶望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背信者는 精神的으로 物質的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데 있어서 惡德 계열에 있어서는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信人은 그 功績에 있어서 눈으로 뚜렷하게 是認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背信者의 피해는 그토록 두드러지게 公開되어 信의 必要性을 절실하게 要請하게 된다.

마치 靑年 壯年期를 넘길 때까지 無病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健康이 所重한 것을 모르다가 老年期에 들어서면서 不吉한 病이 엄습하고서야 健康이

고마웠고 몰랐던 幸福의 第一條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信'은 人間 一人으로부터 社會까지 健康한 人間이요 健全한 社會인가 診斷할 수 있는 基本信號德이라 定義내려도 좋을 것이다.

信實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社會相은 내가 남을 요령껏 속여서 먹고 사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他人들로부터 利用되고 속아가면서 살아간다. 나는 너들을 속이고 너들은 나를 속이는 社會相이 바로 病든 社會이다.

이 病든 社會의 單者들 즉 細胞가 無道德한 人生인 바, 그 病의 徵候가 外的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不信 背信을 일삼는 것이다. 그래서 利益 利權 앞에서는 친구(朋友)가 없고 오직 自身만 생각하는 冷血動物같이 冷情한 利己主義者들이다.

動物的 사람들이 서로가 어울려 相扶相助하며 살아가는 곳에서 삶의 價値를 발견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뭉쳐 살수록 所得과 樂이 增進함을 깨달아 '사람'이라는 動物을 '人間'이라 定名하였다고 筆者는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u>人間</u>되기를 背反하고 <u>사람</u>되기를 선택한 背信者 動物的 사람들은 他人들과 約束을 맺지 않고, 설혹 부득이 약속을 맺었다 해도 破約을 能事로 하여 孤立으로 돌아가서 動物的 삶을 즐긴다.

왜 約束이라는 規範, 信義를 破約하는 것일까?

그것은 前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交通法規를 지키자면 1Km 돌아가야 하고 違法하면 直行할 수 있는 경우, 破約者 違法者 되는 것이 一時的으로는 매우 편리하듯, 人間社會의 約束·規範·公的 信은 長久한 安全策이라도 一時的 不便 때문에 破約하는 것이다.

法律的 規範이나 道德的 規範이 한결 같이 次元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人間이 만든 生活方式인 것을, 그 規範이라는 約束을 안 지키면 高級人間 되기를 포기하고 動物的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모든 規範 즉 法律 禮義 道德 중에서도 '信'이라는 道德規範은 '約束한 公言을 지키는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는데, 지키겠다고 約束한 사람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規範 第一基礎가 무너지므로써 全規範이 全無로 돌아갈 結果를 초래할 責任이 信에 있기에 莫重한 德目임을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孔子도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

哉』(爲政) 라 하여 無信人 無信社會를 크게 警告하였던 것이다.

3) 敎育 基本指針으로서의 信

信義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무리지어 사는 社會相을 살펴보고 그대로 放觀할 수 없는 것이 人間指導者의 良心이다.

그 改善策은 敎育이 있을 뿐이다.

『子以四敎, 文行忠信.』(述而)

孔子께서는 主로 네 가지 方針을 敎育하였으니, 詩經 書經 六藝등 學問과 行實을 바르게 할 것과 誠實한 實踐人이 될 것과 信義가 투철한 人間이 될 것에 力點을 두었다.

詩經을 통해서 人間 情緖를 醇化시키고 書經을 통해서 堯舜이래 周代까지 政治의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六藝를 통해서 禮·樂·射·御·書·數를 넓이 가르쳤다. 특히 古代社會에서 六藝를 敎科目으로 綜合敎育하였다는 것은 現代의 全人敎育을 이미 실시하였다고 하겠다.

禮儀敎育, 音樂敎育, 射擊 射術敎育, 乘馬術, 書藝, 數學등의 교육은 禮節敎育, 情緖敎育, 體育敎育, 書藝, 數理科學을 교육하므로서 理想的 人間像을 養成하였다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모두 '文'에 해당하는 敎育이요 行·忠·信은 특별히 重視한 人間敎育이다. '行'은 實踐人됨이요 '忠'은 最善人됨이요 '信'은 正義人됨이다.

本論文 主題가 '信'이므로 왜 孔子가 信을 敎育指針으로 삼았는가 再考하지 않을 수 없다.

信이 없는 社會는 마치 自然界에 法則이 없는 것이나 같아서 오늘 西쪽으로 넘어간 太陽이 來日 東쪽에서 다시 돋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같다.

人間이 尊嚴한 存在라면 일단 社會生活에서 하겠다고 公言할 경우, 自然法則처럼 西入東出하는 太陽이 절대로 軌道를 이탈하지 않아서 偉大하듯, 人間도 約束을 절대로 지켜야 尊嚴하다 아니할 수 없다.

太陽이 西出東入하다 他方으로 行하면 宇宙의 大秩序가 파괴되어 生成하던 萬物이 全滅할 것이다. 그러한 宇宙秩序는 결코 尊敬할 수 없고 尊敬할

者가 全無할 것이다.

宇宙秩序 즉 天을 尊敬하는 것은 추호의 法則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지켜 萬物을 生成시키기 때문이다.

항차 그 大法則을 嚴守하기 때문에 宇宙內 一物로 태어난 人生들이, 法則을 위반하는 習性으로 人間社會의 規則과 約束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人間存在의 自滅을 自招하는 行態라고 보는 것이 孔子의 입장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言明할 수 있었다.

「子曰予欲無言.
子貢曰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陽貨)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하니, 子貢이 「先生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先生님의 가르침을 傳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자, 孔子 말씀하기를 「하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四時가 運行하며 萬物이 生成하고 있으니, 하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하시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信 自然의 信인 것이라고 敎育하였다.

自然은 無言으로 嚴格하게 生成하여 가는데 人生은 왜 말로서 約束하여 놓고 實行치 않는가? 그 不信은 自然法을 위반한 犯罪임을 알아야 한다.

成文法만 法인줄 알고 不文法 自然法은 法인 것을 모르고 遵法하겠다는 정신상태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을 孔子는 倫理 道德교육을 통해서 信人을 養成하였다.

이 信人은 어느 特定 宗敎信者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成文法은 물론 自然法 倫理規範 道德 一切을 自律的으로 遵守할 수 있는 人間을 말한다.

그 모든 規範을 '信' 一字로 集約할 수 있는바 人間社會의 온갖 規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올바른 倫理 道德人이요 孔子가 文·行·忠·信 四大敎育方針 가운데 '信'指針은 倫理敎育을 말한다.

信人 만드는 倫理敎育은 正人 正義社會 만드는 敎育이므로 그 重大한 所任은 長說로 다 할 수 없어 筆者가 十年前 당시 大統領에게 倫理敎育 强化를 촉구한 바 있어 要旨를 전재한다. 이 建議書를 쓰게 된 동기는 社會가

混亂하고 各 犯罪가 창궐하므로 盧泰愚大統領은 1990年 10月13日 「犯罪와의 宣戰布告」를 宣言하기에 이르러 筆者는 그 勝戰 實踐方案으로 제출하였다.

10·13 「犯罪와의 宣戰布告」 勝戰 實踐方案
—盧大統領께 드리는 建議書—

한 나라의 尖端科學이 아무리 高度로 발달하여 物質的 豊饒를 누린다 하여도 그것을 사용하는 主體者 人間들이 惡하다면 惡用되어 凶器가 될 것이고, 善하다면 善用되어 利器가 될 것이므로 物質科學 振興에 앞서야 할 先須政策은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善良한 人間化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永遠한 政治大道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敎育에서만이 可能하며 敎育의 大道는 참 사람을 만드는 人間敎育 즉 倫理 道德敎育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民主主義 國家는 法治國家라고 해서 나라를 法만으로 다스리려 한다거나 다스려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原因을 불문에 부치고 結果만 소망하는 格입니다.

왜냐하면 法은 不正과 犯罪라고 하는 現象的 事實에 한해서 다스리는 證據主義的 規範이자, 氷山一角的인 最小限의 規範이며, 物理的 强制性으로 위협하는 他律的 處方이기 때문에 不正과 犯罪의 原因 제거가 不可能하며, 언제라도 再犯과 그 이상의 素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倫理道德은 人間의 心性이라고 하는 原因을 바로 다스려, 汎人間社會에 있어서 人間 相互關係 改善이라고 하는 結果까지 바로잡는 科學的 人間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를 眞正으로 옳게 다스리고자 하는 爲政者는 法보다 倫理道德 敎育에 優位的 比重을 두고 政策을 펴나가는 것이 政治大道라 하겠습니다. 國基의 堅固度는 倫理道德敎育에의 注力度에 比例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孔子와 같은 大聖도 다음과 같이 政治紀綱을 闡明하였습니다.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爲政)

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刑罰로 國民을 위협주어 질서를 잡는다면 임시 유지할 수는 있으나 犯罪者를 모면한 것으로 無罪者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道德으로 다스리고 禮로 질서를 바로잡아가면 心情까지 바르게 하여 不正心理가 추호라도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여 스스로 嚴格하여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東洋古代의 政治理論이 아니라 全人類의 永遠한 政治哲學일 것입니다.

政治가 政治原理를 밝히는 政治哲學을 떠나서 베풀어진다면 그것은 變則政治, 一時的 政治, 無常한 政治, 一貫性없는 政治로서 절대로 國民의 信任을 받을 수 없는 不安한 政治가 되어 곧 社會 不安要因이 형성되고 각종 不正과 非理가 싹트게 마련입니다.

六共和國을 이끌어가시는 盧大統領께서 이 나라에 굳건한 民主主義를 定着시키려 한다면 氷山一角格인 結果만 다스리는 法治主義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原因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倫理道德의 汎國民的 生活化에 力點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科學的 爲政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過去를 거울삼아 現在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未來를 創造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綜合的 時間의 科學인 歷史學的 敎訓을 들어보아도 대부분 一致된 견해로 一國의 興亡의 原因은 그 나라에 倫理의 存亡 여부에 있다는 것이며 特히 토인비 博士는 現在의 歷史的 疾患을 「倫理缺乏症」이라 진단하고 人類史의 終末을 구제하는 길은 「倫理의 回復」밖에 없다고 處方을 내렸습니다.……

여기 政治人과 敎育者 특히 倫理敎育者와 뜻을 같이 하고 실천해야 할 所以가 있습니다.

犯罪와 각종 不正과의 戰爭은 비단 現政府만의 非常施策이 되어서는 안되고, 人間이 完全善者로 태어나지 않는 限 人類歷史의 끝없는 挑戰일 것이요, 永遠한 應戰이어야 하며, 그 應戰의 最善의 武器는 倫理道德일 것입니다.

歷史的 疾患으로서의 각종 社會惡을 退治하기 위한 「倫理」라는 藥은 조건없이 投與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人類歷史를 創造하기 위한 歷史的 使命인 것입니다.……

自動車 輪轉士가 車道를 이탈하면 大小 交通事故를 일으키듯, 人間된 者 各者 人道라는 倫理를 이탈하면 人生事故를 일으켜 大小 犯罪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輪轉士가 한 時도 交通法規를 마음 속에서 放心할 수가 없듯, 人間 모두 人道를 밝히는 倫理를 떠날 수 없다는 明白한 사실을 警覺시키고 生活化하는 敎育風土를 조성하는 것보다 時急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政治의 基本인 敎育도 倫理를 生活化하는 敎育이야말로 「참 敎育」, 즉 「참 사람을 育成하는 교육」이 될 터인데, 現下 敎育은 道具知識 注入敎育에 注力하다보니, 主客이 顚倒되어 目的的 存在 人間을 輕視하고 手段價値인 「돈」을 目的視하는 풍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 하겠습니다.……

學問하는 課程에는 必須와 選擇이 있게 마련입니다. 國語·英語·數學과 같은 科目은 學問을 이수하기 위한 道具科目으로 必須이어야 하듯, 動物的 사람이 人間답게 살아가기 위한 目的學인 倫理學은 人生 모두의 必須科目이기에, 國家 人才를 길러내는 最高學府인 大學에서는 倫理의 必須性은 참 敎育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異議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倫理 소외 敎育現象은 盧大統領의 勇斷인 犯罪와의 戰爭

에서 후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初·中·高等學校에까지 敎育의 成敗는 倫理道德 敎育이 옳게 실시되고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敎育評價觀을 定立시켜 이에 힘쓸 것을 文敎第一指針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종 人事 採用時, 昇進時, 人間됨을 측정할 수 있는 倫理試驗의 비중과 각급학교 入學試驗에 있어 倫理成績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風土가 조성된다면 全國民的 關心은 倫理道德에로 크게 전환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黃金의 萬能國인 美國의 최고 교육기관인 하바드大學 經營大學院에서는 1988年 2學期부터 金融界의 非理를 사전에 막기 위한 敎育의 一環으로 倫理學을 必須科目으로 설정하였다는 보도는 敎育者뿐 아니라 政治人들에게도 默過할 수 없는 일이라 思料된다는 점입니다.
이상 大統領의 犯罪와의 戰爭에서 勝利할 方案의 일단을 闡明하고 下筆합니다.

1990年 10月 27日
公州大學校 敎育大學院長 安鍾沄 謹拜

社會가 紊亂하고 犯罪가 창궐하여 大統領이 犯罪와 宣戰布告하기에 이른 것은 말을 바꿔 極度의 不信社會가 됐다고 하겠다.

그 戰爭에서 勝戰할 處方은 信義社會를 만드는 일밖에 없다.

총 칼 같은 物理的 武器로 그 戰爭에 대응할 성질이 아니라 犯罪者들의 心理를 바로잡을 길 밖에 없는 바 그것은 敎育으로 信心을 回生시키는 일이다.

二千五百餘年前 孔子가 文·行·忠·信의 敎育方針을 굳게 내세웠던 것, 現代라고 해서 例外가 아니라 不信 不正社會를 原因退治할 불변의 處方이다.

모든 社會人들이 서로 속이지 말고 正直하게 살아가는 信人이 되는 것, 相生의 길이다.

4) 政治 基本指針으로서의 信

政治가 무엇이냐의 槪念論的 定義로 말하면 孔子가 「政은 正也」라고 가장 짧고서도 無窮한 뜻을 함축한 정의를 내렸지만 任務論的 定義로 말하면 역시 孔子가 子貢의 問政 對談에서 言及한 말씀이 現代 政治人에게도 感銘줄 것이다.

『子貢問政. 子曰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顔淵)

子貢이 政事에 관하여 묻자, 孔子 말씀하기를 百姓들의 食糧문제를 해결할 것과 國防문제를 해결할 것과, 信義社會를 이룩하는 일이라 하였다.

다시 질문하기를 부득이하여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하니 兵事문제를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子貢이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자 食糧문제를 버려야 한다. 自古로 人生이 태어났으면 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죽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信義社會가 무너지면 人間된 者 발 부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다.

즉 不信社會가 된다 하여도 生命은 유지하여 살아갈 수는 있지만 萬物의 靈長으로서의 人間은 끝나고 下等動物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니 그런 삶은 미련없이 버리겠다는 것이다.

人生을 量的으로 살아갈 것인가? 質的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問題에 있어서 物質 本位 삶을 추구한다면 所得과 每事를 計量으로 평가하려 하므로 量的 人生을 택하는 것이다. 精神 本位 삶은 物量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마음으로 知覺하고 옳은 일·착한 일을 하여 기쁨과 보람으로 喜悅을 느껴 人生特有의 價値界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質的 삶으로써 體驗者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孔子의 '民信'思想은 이러한 脈絡에서 연구되어야 하겠다.

本 '民信'은 國民이 政府를 「信任한다」「信賴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筆者는 爲政者가 政治할 때 目標를 信義社會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國民이 爲政者를 믿을 수 있도록 政治하라 할 때 초점은 政治人에게 集中된다. 즉 正直한 政治家되는 것으로 任務가 다 되나, 「民信」이 國民 各者가 信義 투철한 人格者 되는 것은 비슷한 해석 같으나 實은 焦点이 180度 반대 방향에 있게 된다.

古代 君主主義 政治時代는 爲政者가 獨善 獨裁政治를 할 수 있으므로 百姓들이 信賴하도록 善政을 베푸는 것이 政治人의 任務요 目標가 되겠으나,

民主主義政治時代는 마땅히 民意에 信任받아야 한다.

高度民主主義는 人民 모두가 國家의 主人으로서의 能力을 갖추는 일이므로 信義가 두터운 人格者 되는 것이다.

古代君主主義時代는 信人이 君 一人이나 小數의 政治家였으나 民主主義政治時代는 信의 對象이 全國民으로 돌아갔다. 本「民信」의 해석도 時代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民信」은 時代따라 바뀔 것이 아니라 發言者 孔子의 本意를 파악하여 바뀔 수 없는 해석을 찾아야 하겠다. 몇 가지 해석해 보자.

① 백성은 믿음이 있다.

② 백성은 信任 信賴한다.

③ 백성은 믿는다.

④ 백성은 信이 있다.

⑤ 백성은 信義가 있다.

發音에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하듯 위 다섯가지 말이 비슷하지만 ①에서 ③까지는 信의 對象이 客體인 爲政者에게 있고, ④⑤는 信의 對象이 主體 國民에게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섯가지를 해석해보자.

①「백성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매우 애매하고 무슨 말로 받아들여야 할지 분석해 본다.

a) 백성은 모두 宗敎 信仰心이 있다.

b) 백성은 爲政者에게 信賴心이 있다.

c) 백성은 信賴할만 하다.

d) 백성은 信賴心이 있다.

e) 백성을 믿게 한다.

「民信」을 「백성은 믿음이 있다」고 純韓語로 번역했을 때 다섯가지(그 이상도 가능하지만)로 풀이할 만큼 그 眞意를 파악할 수 없다.

② 백성은 信任 信賴한다.

漢字 語彙이므로 애매하지는 않고 「백성들이 爲政者나 政府를 믿는다」는 뜻에 異意는 없다.

③ 백성은 믿는다.

이 경우, 한글語이므로 宗教 信者라는 것인지 政府를 信任한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④ 백성은 信이 있다.

이 경우는 漢字 單字이므로 필요 이상 他字 추가하여 信仰 信任등 어휘가 아니어서 '信'이 있다면 그 나라 國民은 「信義가 있다」는 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信仰」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他人이 信義가 있음을 評價하는 쪽이 가깝다.

⑤ 백성은 信義가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수 없는 明白한 單意 語句이다.

이렇게 「民信」이라는 두 글자 語句가 한글로 번역하면 근 10여가지 뜻을 나타내서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漢字로 表記하면 정확하게 한 뜻을 明示하니 ⑤번의 경우이다.

이제 「民信」의 正譯을 研究하기로 한다. 그러나 書店街에 있는 論語 번역본을 보면 그 부분 다음과 같다.

『…子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식량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있기 마련이거니와,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이니라.』

問題는 『民無信不立』다섯 字 文句이다. 첫째 「無信」의 '信'은 韓語로 '믿음'으로 번역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純韓語는 語源으로 볼 때 原人時代 사람이 巨獸 猛獸들에게 生命 위협받거나 天災地變이 두려울 경우 무엇인가에 의탁하려는 心情에서 '믿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弱者로서 强者에게 의지하려는 '믿음'으로 시작한 言語가 달리 變語될 수 없었다.

그러나 '信'은 文化文字로서 五千年 크게 넘지 않는 時代에 지어진 글字

요 數十萬年前에 만들어진 意思符號에 불과했던 言語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次元높은 語彙文字이므로 그 水準에 따르지 못하는 언어로 바꿔 표현하면 아니된다.

따라서 「民信」「民無信」할 때의 「信」은 그대로 두어야 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追加字를 무슨 字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즉 「信任」「信賴」로 할 것인가, 「信義」로 할 것인가로 壓縮된다.

「信任」「信賴」는 내가 他人을 믿고 의탁하는 것이요, 「信義」는 내가 나를 굳게 믿는 것으로 믿는 方向이 正反對입장이다.

이 경우 「民信」「民不信」의 信은 백성이 爲政者나 政府를 信·不信하는가? 백성인 내가 信義가 있는가, 없는가의 問題이다.

백성이 爲政者와 政府를 信하면 信任, 信賴하여 善政함이 되고, 信義는 백성이 各者 自身에게 信念이 뚜렷하고 他人들에게 信義를 지켜 尊敬을 받아 내가 尊嚴한 人格者가 된다.

이렇게 「信」한 字만 쓰면 밑에 어떤 字를 追加하느냐에 따라 180度 方向이 相反하는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民信」을 「백성이 爲政者·政府를 信賴함이 있다」로 해석할 것인가? 「백성이 信義가 있다」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政策이 달라진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해석을 嚴正히 못하면 孔子의 眞意를 멀리한다.

文法的으로 따지더라도 正譯할 것인가? 誤譯할 것인가? 逢着하게 된다. 「信」은 「믿을 신」이라 풀이했지만 動詞로는 〔믿는다〕 名詞로는 〔믿음〕이고, 英語로는 動詞 〔believe〕 名詞 〔belief〕 인바, 信은 動詞 名詞 같이 쓰고 있다. 英語는 believe로 動詞가 他動詞 自動詞 共用하고 있다. 動詞가 名詞化할 때 動名詞라 하여 〔Gerund〕 라고 까지는 되었으나, 自動詞가 名詞化할 때 自動名詞라 하고 他動詞가 名詞化할 때 他動名詞라 하여 英語로 品詞化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 英文法에 없는 것이 아쉽다. 筆者 命名할 때

自動名詞는 〔Intransitive Gerund〕

他動名詞는 〔Transitive Gerund〕 라 하면 좋을 것이다.

自動詞와 他動詞의 차이는 目的格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바, 自動詞는 없고 他動詞는 있다.

問題의 「信」「믿는다」가 自動詞일 때 「내가 믿는다」즉 조건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自意를 自主的으로 믿는 것이다.

他動詞가 되기 위해서는 「○○를 믿는다」가 되어 믿는 對象인 目的格이 꼭 있어야 한다.

「民信」의 경우 우선 「백성이 믿는다」動詞 文型이 되었다가 「백성이 믿는 것」으로 動名詞 文型으로 바뀐다.

이 때 自動名詞 文型文이 될 것인가? 他動名詞 文型文이 될 것인가에 따라 完全 서로 反對되는 文意가 된다.

그래서 「民信」이 自動名詞 文型이 될 때, 「백성은 信義가 있다」가 되고, 他動名詞 文型이 될 때, 「백성은 爲政者와 政府를 믿는다.」가 되어 完全 다른 뜻의 文章이 된다. 「民信」이, 政治의 任務는 爲政者나 政府가 國民으로부터 信任 信賴받는데 있다고 해석해야 옳은가? 爲政者 떠나서 國民各者 信義心이 두터운 人格者되게 하는 일인가? 判定해야 한다.

市中 書店에 있는 論語 譯書 대부분은 「民信」의 '信'을 他動名詞로 보아서 「백성은 政府를 信賴하는 것」「爲政者를 믿는 것」그러한 政治를 하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常識的으로 해석할 때는 타당하다고 보나 原文을 文法的으로 검토할 때 문제가 있다.

「民無信不立」의 번역으로

①「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②「백성의 信任 信賴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가 없다」(지탱할 수 없다)

③ 백성이 信義가 없다면 설 자리가 없다.

①은 信을 「믿음」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信仰인가 信任 信賴인가 自信인가 他依信인가 핵심이 빠져 本意를 알 수 없는 번역이다. 앞서 밝힌 '믿음'이라는 韓語는 다분히 信仰心에 가까워서 그런 誤解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信을 번역하지 말고 그대로 '信' 一字만 쓰던가 '信'字 밑에 說明文字를 追加해야 한다.

②는 '信'字 밑에 '賴'를 추가하여 「백성은 信賴한다」의 文型을 動名詞化하여 「백성이 政府·爲政者를 信賴함」이라 하였으므로 他動名詞 文型이

다.

여기에서 가장 큰 問題는 他動名詞 文型을 만들기 위해서 原文에 없는 目的格을 만들어 넣었다는 사실이다.

그 目的格은 爲政者 政府인바, 論語 顔淵篇 子貢 問政章에는 王이나 政府를 主語로 明示하지 않고 政治의 原則을 論하였을 뿐이다.

더욱 「民無信」 다음에 「不立」으로 끝낸 것을 살펴볼 때 「民無信不立」 다섯 字의 文章이 실은 「民無信」 즉 「백성이 信이 없다」의 한 文章과 「不立」 즉 「설 수 없다」 「설 곳이 없다」의 또 한 文章이 結合한 複合文章이다.

그러면 앞 文章은 「民無信」으로 主語가 「民」인 것이 확실하나 뒤 「不立」 文章은 主語가 없다. 이 때 없는 主語를 만들자니 「爲政者」 「政府」를 등장시킨 것이다.

그것이 잘못이요 誤譯의 原因이다. 「民無信, 不立」 두 文章을 一文章으로 만들자니 자연스럽게 뒤 文章의 主語를 생략하였으니 바로 앞 「民」을 뒤에서는 빼서 「民不立」될 것을 「不立」 두 字로 줄였다.

그래서 「백성이 信 없다면 (백성이) 설 곳이 없다」

이것이 옳은 것이요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이니라.」

「백성의 信賴를 못 받는다면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아래 두 번역은 잘못 되었다. 「나라」나 「國家」는 文法 構造上 들어올 수 없는 假定主語이기 때문이다.

또한 '信'을 '믿는다' '信賴한다' '信任한다'의 動詞는 옳치 않다. 왜냐하면 '믿는다' '信任·信賴한다'는 他動詞이기 때문에 目的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는 目的格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 '국가'라는 假定主語를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國文도 嚴格히 文法을 적용하였더라면 이러한 誤譯은 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信'을 自動詞로 하여 「民信」 「民不信」이 獨立된 文章의 역할을 해야한다. 그래서 「백성은 信義롭다.」 「백성은 信義

롭지 않다」요 이것은 「백성은 信義가 있다」「백성은 信義가 없다」의 直譯이다.

여기에 爲政者나 政府는 言及될 여지가 없다. 「民信」「民不信」에 王도 政府도 없고, 다음 「不立」에도 그것이 없는데 번역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常識에 좇아 「國家」「나라」삽입하였다.

두 文章의 主語는 「民」이기 때문에 后文은 하나를 省約하여 「不立」이라 하였다. 그래서 「백성이 信義롭지 못하면 (백성은) 서지 못한다.」인 것이요 意譯하면 「백성이 信義가 없다면 백성은 발 붙일 곳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어디고 한 時도 발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直面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孔子가 最高의 德「仁」을 首弟子 顔淵에게 傳할 때,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顔淵)이라 說한 바와 一脈相通한다. 즉 仁者가 되면 어디를 가나 (天下) 환영받고 살 수 있다 하였으니 만일 不仁者 不信者 背信者가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人間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추방당하지 않을 길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 「民無信 不立」과 거의 같은 內容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一括하여 정리하면 孔子의 政治觀은 經濟的 安定, 國防 安定, 信義社會 實現이였음을 알 수 있다. 앞 두 目標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셋째 「民信」에 관해서는 해석이 文法을 정확하게 적용치 않았기 때문에 爲政者 王 一人中心 政治論이 通說化하였었다. 그러나 孔子는 王 한 사람에게만 百姓들로부터 信賴 信任받을 수 있는 政治를 해야 한다는 철저한 君主主義的 政治觀이 아니라 民本 民主主義的 政治觀이었다.

文字 둘 「民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孔子의 政治觀이 君主主義인가, 民本民主主義인가 갈라진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또한 君主主義的 政治論이 되면 國民은 善한 王을 따라가는 것으로 足하나, 民本民主主義 政治論은 나라의 主體요 主人인 國民이 主人 될 資格이 있어야 하는바, 그 길은 百姓 모두 道德으로 修鍊, 人格者 되는 일이다.

그래서 백성 모두 不信 背信者가 되면 이미 人間 되기를 포기한 動物 以下로 추락하여 人間은 죽고 말기에, 直立해야 할 人間이 直立할 곳이 없다

하니 「人間은 죽는다」는 말이다.

人間社會를 動物界로 방임할 것인가, 人格者界 되게 하겠는가, 그것이 政治人의 責任임을 覺醒시켰다.

筆者가 前項에서 大統領에게 各級 學校 倫理 道德敎育을 必須로 철저하게 실시할 것만이 長久的으로 不正 腐敗 不信 犯罪와의 戰爭에서 勝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 것도 孔子의 政治思想 敎育思想과 通하기 때문에 建議할 수 있었다.

信義社會가 실현된다면 거기가 相生할 수 있는 後天世界가 열리는 곳이다.

5) 忠信의 意義

論語에 信이 27번 擧論된 가운데 5번 忠信 두 字가 함께 竝論되었다.

이것은 두 字가 우연히 竝論되었다기 보다 必然的 關聯이 있는 德目이기에 다섯 번이나 함께 講論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모두 들어본다.

> 『子曰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學而)

孔子 말씀하기를 君子는 무게가 없으면 品位가 없고 배운다 하여도 堅固하지 못하다. 忠直하고 信義가 투철해야 할 것이며 나만 못한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는데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君子를 現代 用語로 표현하면 人格者라 하면 통용될 것이다. 물론 人格者로 말하면 낮은 人格者부터 높은 高位人格者까지 수없는 계층이 있겠으나, 君子는 이미 高位人格者로서 결점없는 上等 水準에 올라간 人士를 말하여 일률적인 人格者와는 다르다. 그러나 현대는 孔子時代가 아니므로 君子도 現代化하자면, 人格과 거리가 먼 大衆社會에서 人格者는 孔子時代의 君子만큼이나 듣기가 드물어 現代 人格者는 大衆次元을 초월한 高級人士라는 의미로 통칭하기로 한다.

人格者가 되자면 그 品位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孔子가 講說한바 要点은

「主忠信」이다.

「忠」은 나 一身이 眞實하고 誠實하고 正直하며 每事에 最善을 다하여 결점없는 人間像 德目이다.

「信」은 나 一身에 焦點을 맞추지 않고 社會內存在로서의 人間에게 社會를 눈뜨게 한 德目이다.

孔子는 人格 함양을 힘쓰게 하면서 一身 人格者를 社會의 人格者로 크게 하기 위해서 '忠'과 '信' 함께 힘쓰게 하였다.

信은 '나'와 '他人들'과 共同生活하는데 相扶相助하여 아름다운 人間生活을 도모하게 하는 德目이므로 信을 잘 지키는 信義社會는 道德王國이라 하겠다. 그 社會의 王은 特定한 사람이 아니라 道德대로 살아가는 人格者 모두이다. 그러므로 信義社會는 道德民主社會이다.

「子曰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公冶長)

孔子 말씀하시기를 十戶 民家정도 사는 小邑에는 반드시 孔子만큼 忠信지키는 사람이 있겠지만 學問하기를 孔子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하였으니, 孔子의 好學精神을 알 수 있는 글이며 忠信之士가 그렇게 極少하지 않고 小邑村마다 있음을 시사하였다.

「子張問崇德辨惑. 子曰主忠信, 徙義, 崇德也. 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旣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顔淵)

子張이 德을 숭상함과 迷惑에 빠짐을 識別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쭙자, 孔子께서 忠直하고 信義를 지켜가며 正義를 키워가는 것을 道德을 숭상함이라 하고, 사랑할 때는 길이 살기를 소망하고 미워할 때는 곧 죽기를 바라는 것, 이미 살기를 바라다가 다시 죽기를 바라니 그것은 感情에 흔들리는 迷惑이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崇德 가운데 忠과 信이 큰 위치에 있음을 알겠다.

「子張問行. 子曰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衛靈公)

子張이 處世行實문제를 묻자, 孔子 말씀에 말은 忠直하며 진실하게 하고 行實은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가서도 살 수가 있거니와, 말이 충실하지 못하여 믿음성 없고 行實이 불손하면 어찌 자기 마을과 近洞에서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忠과 信은 野蠻人社會에 가더라도 그들을 感化시킬 만큼 숭고한 德으로 평가되어 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교육되었다.

前項에서 顔淵에게 仁을 說할 때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의 '一日' '天下'는 一旦 克己復禮 한 사람은 天下 全部가 아니라 天下 어디를 가더라도 大人格者인 仁人으로 높이 歡迎받는다고 해석한 바, 여기 子張에게 '忠信'하면 똑같은 결과가 온다고 하였으니 忠信 또한 仁을 실천하는 處方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儒有不寶金玉, 而忠信以爲寶」(禮記 :儒行)

선비는 金과 玉을 보배로 생각하지 않고 忠과 信을 보배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子曰君子進德修業, 忠信所以進德也」(易 : 乾卦象辭)

君子는 德業을 닦고 정진하니 忠과 信이 德에 정진하는 것이라고 孔子 말씀하였다.

「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大學 : 傳第十)

君子는 大道가 있으니 반드시 忠과 信으로 얻고(大道를), 교만하고 거만하면 잃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忠信」이 修德의 至寶的 大道임을 강조하였다.

6) 人性으로서의 信

信이라고 하는 德性의 特色은 노력으로 쌓아 올려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있다 하고, 없는 것 없다」하는 事實을 정확하게 지키는 마음씨가 信性이다.

人間社會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 것 있다 하지 않고, 없으면서 있다」하는데서 不正社會를 만들어 간다.

眞實한 人間, 眞正한 人間이 아쉽고 尊敬하는 까닭은 事實은 嚴然한데 事實대로 밝히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일을 '僞'라 하고 僞는 '거짓 위'요 '속일 위'이며 '人'字와 '爲'字가 合하여 이루어졌다.

信은 그것을 미워하고 그런 일이 없이 是는 是요 非는 非라고 事實을 밝히는 것이 信의 任務이다.

人間社會에서 '眞' '참'을 尊敬하고 崇尙하는 것은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를 事實대로 밝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사람이 높이 評價받고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世相」이라 하며 不信社會가 人間社會의 代名詞가 되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正常的 人間이요 當然한 人間이기에 힘써 修道하지 않고도 自然스럽게 事實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信人'이므로 '信'을 當然한 人間性 · 人性이라고 해야 하겠다.

孔子가 人間敎育에서 信을 중요한 德目으로 한 까닭을 알겠다.

「子曰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衛靈公)

孔子 말씀하기를 君子는 義로써 바탕을 삼고 禮로써 行爲하고 공손하게 處世하고 信으로 成事한다고 하였다.

本項에서 「信以成之」라 한바, 「成之」의 '成'이 무엇인가?

「成」은 「爲」해서 이루어진 結果인 바, 爲하지 않고서는 「成」할 수 없다. 「爲」도 「僞」가 있는 바 거짓과 속임으로 한다면 成事되지 않는다. 반드시 正直하게 爲해야 成事될 것이요, 속임과 거짓으로 僞하려 한다면 一時 되는 듯 하다가 그 本色이 드러나 不正事가 公開된다.

完成하자면 信으로 一貫해야 한다.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能行五者於天下, 爲仁矣. 請問之. 曰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陽貨)

子張이 孔子께 仁을 질문하자, 능히 다섯 가지를 세상에 베풀 수 있다면 仁을 한다고 하겠다.

다시 문의하자, 恭遜할 것, 寬大할 것, 信義가 있을 것, 민첩할 것, 혜택을 베풀 것이다.

恭遜하면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고, 寬大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信義가 있으면 사람들이 信賴하여 信任하게 되고, 민첩하면 많은 일을 成事 올리고, 혜택을 베풀면 사람들이 갚고자 하니 일을 넉넉히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참으로 眞談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시 人性으로서의 信에 관해서 言及하면 信人되기 위해서는 거짓말 僞言하지 말 것, 남을 속이지 말 것, 天眞스런 赤子처럼 진실할 것, 그래서 참사람 眞人으로 復歸할 때 信性을 찾는다.

왜 '復歸'라 하느냐 하면, 赤子가 배고플 때 울고 배부르면 웃는 것처럼 거짓을 모르던 것이 天眞信인 바, 成長하면서 때묻은 人間社會에 汚染되어 사람들을 속이기 배워 不信人이 된 것을, 속이기 · 거짓말 안 하는 상태로 돌아가면 信人되기 때문이다.

「信은 人性이다」라는 筆者의 新學說은 「仁 · 義 · 禮 · 智」四端을 生來的으로 갖췄다는 孟子의 性善說 못지 않게 妥當性 있고 科學的일 것이다.

天然人 赤子는 「있는 것 있다」하고 「없는 것 없다」하는데, 旣成人들은 「않고도 했다」하고 「한 것을 안 했다」하니, 이래서 不信社會 不正社會가 된 것 바로잡기 위해서는 '信' 人間性으로 復歸시키는 社會敎育運動이 展開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天眞스런 嬰兒의 信이 完全하므로 嬰兒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子曰…好仁不好學, 其蔽也愚. …好信不好學, 其蔽也賊.…」(陽貨)

'仁'이라고 하는 最高德도 學問으로 익혀 修鍊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信이라고 하는 社會正義의 德도 學問으로 익히지 않으면 義를 害친다고 하였다.

그래서 '信'이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學問으로 익혀야 '信義'가 되어 正義社會를 실현하는 德目이 된다.

約束을 지키는 것이 信에 틀림없으나 不正한 約束, 不義人과의 約束까지 지키면 義를 害치는 '賊'이 된다.

孔子의 '信' 思想 가운데 순수하게 '믿는 것'으로서의 信이 한번 나오는 바,

「子曰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述而)

孔子 말씀하기를 古典을 풀이하기는 하여도 創作하지는 않았고, 古典을 믿고 좋아하니 넌지시 나를 (殷나라 賢明했던 大夫) 老彭과 비겨본다고 하셨다.

이 때의 信은 信義도 信仰도 信賴도 아닌 「믿는다」의 信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따르는 從하는 信이므로 지나치게 따르다 보면 盲從이다. 孔子는 萬古에 없던 大學者이므로 盲從할 사람이 아니기에 '따를 信'을 쓰는 경우는 極히 드물 것이다. 「述而」篇 첫 章에서 '믿고 따를 信' 字로 처음 쓰고 더 나오지 않는 것은 「好古」가 뜻하듯, 古典에는 聖賢들의 政事의 기록 또는 人間抒情의 기록 등은 의심의 여지없는 유익한 人生敎科書이므로 믿고 따를 수 있었고, 그 外에는 없어서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信은 그만큼 明白한 事實, 明證할 수 있는 記錄에 한해서 '믿음'의 信일 수 있다.

以上 孔子의 '信'思想을 살핀 바 거의 信義로서의 信을 사용하였고 '믿는다' '믿음'의 信 즉 **'Believe' 'Belief'**의 信은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

2. 老子의 信思想

東洋哲學을 代表하는 思想이라면 儒學 즉 孔孟哲學이라는데 이의가 없으나 이어서 제기되는 思想은 老莊哲學으로써 孔孟哲學과는 너무나 대조적 思想이 또 다른 人間 思考方式을 可能케 한다.

지나치게 相反된 思想이어서 自然스런 意識의 流露인가, 의도적 相反 思

想派의 위치를 뚜렷하게 하려는 것인가 의아스러울 때가 있다. 그 實例로

「大道廢, 有仁義. 慧智出, 有大僞.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老子 道德經 18章)

大道가 폐하고서야 儒家 最高德 仁義가 있게 되고, 지혜가 나오자 大詐欺가 있게 되고, 六親이 不和하자 孝道와 慈愛가 나오고, 國家가 혼란해지자 忠臣이 나온다고 한다.

이처럼 相反된 意識構造의 思想으로 主題 '信'을 살피기로 한다.

老子는 孔子만큼 人間界의 實踐哲學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信'의 言及도 다섯 번 나올 뿐이다.

그 五個 章을 다 열거하기로 한다.

「孔德之容, 惟道是從. 道之爲物, 惟恍惟惚.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窈兮冥兮, 其中有精. 其精甚眞, 其中有信. 自古及今, 其名不去, 以閱衆甫. 吾何以知衆甫之然哉, 以此.」(老子 : 21章)

大德의 모습은 오직 道를 따라 나타날 뿐이다. 道가 物되게 하는 것은 오직 황홀하고 또 황홀할 뿐이다.

황홀할 따름이여! 그 가운데 象(모습)이 있고, 황홀할 따름이여! 그 가운데 物이 있다.

고요하고 고요할 따름이여! 그 가운데 精氣가 있고, 그 精氣는 지극히 참되고 그 가운데 信이 있다.

옛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고 만물의 근원을 살핀다.

나는 어떻게 만물의 근원이 그러한지 알겠는가? 이 때문이다.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爲而無以爲, 下德爲之而有以爲. 上仁爲之而無以爲, 上義爲之而有以爲,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扔之.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 而亂之首. 前識者, 道之華, 而愚之始. 是以大丈夫, 處其厚, 不居其薄, 處其實, 不居其華. 故去彼取此.」(38章)

上級 德人은 德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은 德이 있는 것이다.

下級 德人은 德을 잃은 사람이기에 無德人인 것이다.

上級 德人은 無爲自然者이므로 意圖的으로 하는 바가 없다.

下級 德人은 애써 함으로 每事가 意圖的이다.

上級 仁人은 人爲的이면서 每事가 意圖的이지는 않다.

上級 義人은 人爲的이면서 每事에 意圖的이다.

上級 禮人은 人爲的이면서 禮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팔을 걷어부치고 억지로 시킨다.

그러므로 道를 잃고 나면 德이 나오고, 德을 잃고 나면 仁이 나오고, 仁을 잃고 나면 義가 나오고, 義를 잃고 나면 禮가 나온다.

무릇 禮는 忠과 信이 박약한 상태에서 나오고 亂世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앞을 안다고 하는 智人은 道의 枝葉的 存在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인물이다.

그러므로 大丈夫는 厚한 곳에 자리하고 薄한 곳은 處하지 않으며, 實質을 취하고 枝葉的인 것은 멀리한다.

이것을 보면 老子는 孔子가 崇尙하는 仁·義·禮·智·忠·信등 貴한 德을 철저하게 平價切下하고 오직 道에 따르려는 無爲自然主義를 내세웠다.

「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
善者吾善之, 不善者吾亦善之, 德善.
信者吾善之, 不信者吾亦信之, 德信.
聖人在天下, 歙歙爲天下渾其心.
百姓皆注其耳目, 聖人皆孩之.」(49章)

聖人은 변치 않는 常心이 없고 百姓의 마음으로 聖人心을 삼는다.

착한 사람은 나도 착하게 대접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역시 착하게 대접하니 德이 善하기 때문이다.

믿음성 있는 사람은 나도 믿음성 있게 대접하고, 믿음성 없는 사람은 나는 믿음성 있게 대접하니 德이 信하기 때문이다.

聖人은 天下에 있어서 편견(偏見)이 없어 渾然一體가 된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두 귀와 눈을 집중하고 聖人은 함께 어린이가 된다고 한다.

「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辯, 辯者不善. 知者不博, 博者不知. 聖人不積. 旣以爲人其愈有, 旣以與人己愈多. 天之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

不爭.」(81章)

信義있는 말은 듣기에 아름답지 않고 듣기 아름다운 말은 信義가 없다.

착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고(辨明이 없고), 말이 많은(辨明이 많은) 사람은 착하지 않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博識한체 하지 않고 博識한체 하는 사람은 참으로 알지 못하다.

聖人은 (財物을) 쌓아두지 않는다. 남을 위해서 이미 썼으면 나는 더욱 있게 되고, 이미 남에게 주었으면 나에게는 더욱 많아진다.

天의 道는 利롭게 하고 害로움이 없으며 聖人의 道는 함이 있어도 다투는 일이 없다.

「……信不足焉, 有不信焉.」(23章)

23章의 前文은 信과 관계가 멀므로 생략하고 8字로 독립된 부분만 썼다. 「信이 不足하면 남들이 나를 不信한다.」는 지당한 말이다.

以上으로 老子 道德經 81章 中에서 信에 관해서 言及한 章은 모두 밝혀 해석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老子의 信哲學이 독특하게 들어 있는 章은 21章으로서 '信'은 한 字만 「其中有信」으로 나올 뿐이다. 그 외의 四個章에 나오는 信은 일반 通念으로서의 信이었다.

21章은 老子의 宇宙 森羅萬象이 生成하는 創生觀을 말한 것이다.

太初 宇宙萬物이 形成할 때 恍惚하고 고요하며 그윽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宇宙의 精氣는 眞氣이기에 最大의 信으로 萬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老子가 보는 宇宙는 그 元初부터 眞한 精氣로 뭉쳤기 때문에 거짓된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最高의 信 保證處인 것이다.

宇宙內 全萬物의 始發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므로 自然히 全象界는 眞實한 것, 그렇게 全萬物이 있는 곳이 自然이다.

老子哲學은 自然主義라 하는 바, 그가 보는 自然은 추호도 거짓이 없는 眞實界이므로 오히려 人生이 造作하여 옳다고 하는 것이 僞善하고 不信하다

는 것이다.

그래서 無爲自然이 眞實하고 거짓이 없어 自然을 全的으로 믿을 수 있다는 '信'觀이다.

問題는 老子의 宇宙創生觀 즉 「惟恍惟惚,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窈兮冥兮, 其中有精, 其精甚眞, 其中有信.」은 老子가 造作한 글이 아닌가? 할 것이다. 어떻게 老子의 이 말은 믿을 수 있겠는가 할 것이다.

'信'을 말하는 글 自體를 不信할 수 있다는 것이다.

老子는 二千五百餘年前 사람인데 宇宙創始는 數百億年이상 前을 넘는다면, 어떻게 그가 옆에서 宇宙創始를 目睹한 듯 과장된 표현으로 實象을 表記하는 것, 信할 수 있는 根據가 무엇인가? 할 것이다.

老子의 答辯을 推理하여 본다.

宇宙萬物生成觀을 說한 글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抱陽, 沖氣以爲和.」(42章)

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萬物을 낳는다. 萬物은 陰을 업고 陽을 안고 沖氣로 和愛한다고 하였다.

'道'는 老子哲學의 頂上 槪念으로 宇宙를 生成케 하는 <u>形而上學的 總原理</u>라 한다면 '一'은 '氣'라 하겠고, '二'는 陰과 陽이라는 두 氣라 하겠는데 '三'은 무엇인가? 다음 글에서 '沖氣'로써 和한다 하였으니 沖氣가 틀림없으나, 沖氣가 무엇인지 正答이 나오지 않고 있다.

筆者는 '沖氣'를 '사랑(愛)'이라고 한다. 사랑은 精神的인 것인데 어떻게 物質的 要素로서의 '氣'라 할 수 있는가 反論할 터인데, 앞서 '二'는 陰과 陽이라 하였으므로, '三'은 陰陽 사이에서 生기는 沖氣 즉 陰陽愛氣 男女愛로써 이 사랑은 精神愛가 아니라 陰陽 男女는 이미 物質로 分化된 상태에서 發生하는 사랑이므로 形而上的 사랑이 아니다.

陰陽의 사랑은 陰陽의 기운·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생각 思慮로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다.

宇宙의 總設計圖로서의 道가 있은 후에는 資財로서의 氣가 있고, 氣는 안(內) 資財와 밖(外) 資財로 분리되듯 陰氣와 陽氣로 분리되어 그 다음은 陰

陽이 兩立될 때 雙者 相愛되는 것이 沖氣의 作用인 것이다.

沖氣라는 陰陽愛를 하게 되면 새 生命이 탄생되어 이렇게 萬物이 生成하는 것이다.

이 法則은 太初로부터 久遠의 未來까지 不變할 것이니 이것이 宇宙의 '信'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法則 즉 道를 알면 太初로 올라가지 않고도 太初를 알 수 있고 먼 未來까지 가지 않고도 現今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21章 「道之爲物」을 본 듯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까닭이며 「恍惚之境」은 自己自身이 造物主的 役割을 하였기 때문에 體驗을 미루어, 道가 物을 만드는 것을 擴大하여 말할 따름이었다.

造物主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陰陽인 夫婦가 子息의 造物主이고, 子女生産하기 위한 性行爲하는 순간 「恍惚」「窈冥」이라 표현하였을 것이다.

그 순간 두 精氣가 뭉쳐 거짓없는 眞짜 두 사람만의 새 生命임에 틀림없어 信賴할 수 있는 自己子女인 것이다.

그래서 「其精甚眞」「其中有信」이라 하였으니 이 얼마나 正確한 表現인가!

老子의 '信'은 이렇게 宇宙의 攝理를 根據로 演繹한 '絶對 信'을 確信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人生이 不安하여 의탁하려는 '믿음'과는 次元을 달리함을 알 수 있겠다.

道家의 元祖 老子를 道敎의 元祖라 하여 老子의 哲學을 宗敎的으로 해석하려한다면 그것은 無理한 臆測論이며 차라리 哲學的 信論이 될 것이다.

Ⅱ. 宗敎的 信

1. 有神論的 宗敎의 信

漢字自體가 中國歷史 一萬年을 넘지 않는 半萬年 前後하여 제정되었다고 보면 古代文化가 나름대로 크게 發展된 所産이라 보겠고, 主題의 '信'도 原始 未開時代 표현이 아니라 人智가 水準이 높은 단계에서 人對人의 約束을

지킬 필요 때문에 제작된 文字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信' 單字만으로는 宗教的 要素를 찾을 수 없고 宗教的 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仰'을 추가한 '信仰'이라야 함을 밝혔다.

그러나 韓語로 '信'을 번역하자면 '믿을 신'이상 다른 말은 찾을 수 없고, '믿음'의 始初를 찾아본다면 人對人이 아니라 數十 數百萬年前 原始時代에 天地 大變 巨獸의 위협이 두려워 의탁하고자 超大者를 요청, 있기를 믿었다.

이것은 韓民族 뿐 아니라 모든 民族도 같은 경우로 '믿음'이 시작되어 宗教가 싹터왔다. 그 때는 文字가 없었을 것이고 言語를 發音하여 각 민족의 '믿음'이라는 말이 각기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 때의 超大者는 거의 '神'이라 하겠고 그 神이 **있음**을 確認하여서가 아니라, **있기를** 所望하는 要請的 實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神은 實在가 아니라 所望이다.

이 所望은 곧 '믿음'이다. 이 믿음이 굳고 굳으면 實在化되어 神은 絶對로 「있다」가 된다.

이렇게 人類歷史 이래 宗教가 發生하여 發展하여 오고 있다.

中國의 경우 信의 構造로 보아 '信'은 宗教的 信이 아니라 '約束'의 信이므로 信仰이라는 槪念으로 새로운 宗教史가 시작되어야 한다.

宗教的 信仰은 누구하고 約束하여 宗教가 成立될 것인가?

그것은 要請的 實在로서의 神인 바, 要請이 없이 神이 信仰人 앞에 우뚝 설 때 所期의 宗教人이 된다.

所期의 宗教人에게는 神이 있다 없다 要請的 神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있다」일 뿐이다.

이 모두가 '信'이라기 보다 '믿음'의 所以이다.

'信'과 '믿음'의 차이는 信이 人對人 관계에 있어서 主로 朋友라고 하는 他者가 目的格으로 엄연히 있으나, '믿음'은 抽象名詞이거나 '믿는 것'으로서의 動名詞 그 중에서도 目的格이 없는 自動名詞이므로 구별이 된다.

그러면 宗教하는 측에서는 目的格이 있다 하며 바로 絶對者·超大者·神이라 할 것이다.

文法에서는 絶對者·超大者·神은 對我者 즉 나와 對立된 外界에 있는 他

者가 아니라, 나의 信心·信仰하는 마음의 所産이므로 目的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宗敎的 '信'과 '믿음'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 된다.

여기 宗敎的 信이나 믿음은 論理學이나 文法學으로 推究하여 보아도 外在者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眞實한 自身을 믿는 것이 明確하여졌다.

宗敎信者가 眞實하지 못하면 神도 不實 또는 僞善神 妖邪神을 믿게 될 것이요, 그런 사람은 宗敎를 갖지 않는 것이 罪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宗敎人이 眞實하면 그가 믿는 神도 眞實해서 眞과 善, 美를 더욱 굳세게 追求하여 非宗敎人이 따를 수 없는 高次元의 人間界를 體驗할 수 있을 것이다.

有神論的 宗敎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믿고 따르는 神이 想念神인가 實存神 즉 實在했던 人神인가에 있으나 文化宗敎일수록 實在했던 唯一人神이고 未開宗敎일수록 想念神임을 再論의 여지가 없다.

大巡眞理會 佛敎 예수敎가 좋은 보기가 될 것이며 이 모두 文化宗敎에 틀림없으나, 公認될 文化宗敎의 信者가 되었다 하여 次元높은 文化人이 될 수 있는가의 答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人間됨이 먼저 있고 宗敎가 人間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各 宗敎마다 所望은 높다. 天國에 가든가 仙境을 실현하든가 그 宗敎의 目的論임에 틀림없으나, 每事에 있어서와 같이 順序가 있는 法, 天國이나 仙境가기에 앞서 갈 수 있는 資格을 갖추는 일이다. 高級 乘用車를 선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運轉면허증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天國 仙境의 主人될 修道가 앞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宗敎人이라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修道하지 않고 宗敎界를 紊亂케 하고 宣敎活動을 화려하게 하는 것, 참으로 옳지 않다.

對象 神이 크게 怒여워 할 것이다. 目的地를 거꾸로 가지 말고 正道대로 正人되기 修道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神도 나를 믿고 所望을 達成시켜 줄 것을 나는 굳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神信 곧 我信이다.

2. 無神論的 宗教의 信

常識的으로 생각하면 神을 믿지 않고서 宗教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겠지만 神을 부정하는 宗教는 佛教가 대표라고 하겠다.

그러면 神 대신 佛을 믿는다면 用語만 달리 한 것이요 信仰의 對象을 佛로 옮긴 것, 方式은 같은 宗教라고 할 것이다.

佛에게 무엇을 바라고 宗教行爲를 하는가 할 것이다. 實은 韓國佛教의 특색은 護我佛教요 護家佛教요 護國佛教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佛教는 神 대신 佛이 信仰의 役割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信者의 소망은 佛이 加護하기를 바라고 또 굳게 믿기 때문에 佛教에 入門한 것이겠으나 他 宗教와 次元을 달리 하는 것은 自主宗教라는데 있다.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소망을 달성하겠다」면 低次元의 佛徒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 해서 하고자 하는 目的을 自立하자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佛教는 「부처님의 加護를 받겠다」는 것이 아닌 것은 '佛'이 唯一無二한 信仰의 對象者요 保護者가 아니라 'Buddha', Buddha는 '覺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佛徒가 되겠다는 것은 「나도 깨달아 佛이 되겠다」는 것이다. 他者인 信仰의 對象者에게 保護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이 되어 衆生을 구제하겠다」는 能動宗教이다.

거기에 무슨 '믿음' '信'이 있는가 하면 「나도 佛이 된다」하는 意志를 굳게 믿어라 즉 '自信'을 가져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佛教는 自主 自律 自立 宗教인 것이다.

佛教에서 教祖 釋迦牟尼를 信仰한다면 그 분이 깨달은 眞理를 믿고 그 분처럼 大覺者 부처님이 되겠다는 소망이요 自信이다.

그러나 佛教도 他宗教 못지 않게 儀式과 行事가 다양한 것은 그것이 信者들의 自意라 할 것인가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은 「'覺'이란 佛道의 最高 단계요 覺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修鍊은 佛教的 法方을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釋迦가 佛되기까지 六年의 難行苦行 修鍊을 겪어야 했듯 衆生이 어찌 安易하게 成佛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凡人들이 佛徒되어 高僧된 사람이 歷史이래로 많지 않은데 現世 그 많은 信徒들 가운데 얼마나 옳은 佛徒의 道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며, 宗團 指導層人士들부터 自尊心으로 앞을 다투며 自派勢문제로 분쟁이 빈번한 것을 보면 修道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佛信者로서 修道하자면 基本이 三毒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貪慾永盡, 瞋恚永盡, 愚癡永盡으로서 貪慾은 온갖 慾心이요, 瞋恚는 성을 내는 것 원한을 품고 분노하는 것, 愚癡는 一切 煩惱를 말한다.

人生으로 태어나 三毒이라고 불리우는 三大 精神的 罪惡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 自作心理인 바 이것이 人間界를 苦海로 不幸하게 만든다. 苦海는 生老病死를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生하는 동안 온갖 慾心이 얼켜서 苦痛을 自作하여 不幸케 한다.

宗教가 있게 된 原因은 마음의 平和를 이룩하여 幸福하게 살자는 것일터인데 無神論的 宗教인 佛教는 他宗教와 달리 自力으로 그것을 成事하자는데 뜻이 있다. 信徒로서 貪 瞋 癡가 남달리 强해서 教界를 어지럽게 한다면 宗教人답지 않다.

大巡眞理會는 無神論的 宗教가 아니라 有神論的 宗教임에 틀림이 없으나 目標인 '道通'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貪慾을 없애야 하고 感情에 치우쳐서 激情으로 怨恨을 맺는다면 평생 풀리지 않아 慼(척)이 가혹하게 쌓인다. 또한 先覺者라고 하는 많은 先入 道人되는 분들의 道談을 들으면 모두 '道'를 잘 알고 있으나 實踐이 아쉽다.

첫째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同道人間에 분열된다면 上帝님 道主님 都典님의 靈魂이 道人 아니라고 크게 怒하시며 容恕하시지 않을 것이다.

오직 相和하고 相愛하여 相生倫理를 지켜 갈 뿐이다.

結 論

本 論文의 主題가 '信'임에 틀림없으나 韓語로 '믿음'으로 번역하면 主旨를 멀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中國 語彙와 韓國 語彙가 同一할 수 없고 부족한 言語를 수입하여

내나라 言語化하는 것 우리 文化水準을 높인다는 데서 좋은 일이다.

'믿음'은 그 語源의 歷史로 보아 몇 十萬年前인지 알 길 없는 原始時代 사람들이 言語를 만들어 쓸 때,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지어 썼을 것이다. 그 말의 發生動機가 弱한 人生이 超大者의 偉力 앞에 救援을 호소하고 소망을 달성하리라 믿어서 '믿음'이라는 心情과 言語가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信'은 字源과 語源이 五千年 前後의 近古代期 비교적 古代文化가 상당한 水準에 올라와서 人間이 尊嚴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속이지 말고 相扶相助하며 서로 믿고 살 필요를 절실히 느껴 言約이 公約되어 '信'言과 '信'字가 制定되었을 것이다.

이 字 制定 이후 三千餘年이 경과한 后 孔子가 出現, 사람이 動物次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道德教育으로 改善해야 하는 바 그 中에서도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어,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正直한 人間이 될 信義教育을 强調하였다.

孔子의 '信'思想은 信仰과 같은 宗教的 素地가 없다는 것이 特色이다.

오직 眞實만 추구하였고, 信의 教育은 眞實한 人間되는 것 뿐이었다.

雙峯이라 할 老子의 信思想은 人間社會의 信이 아니라 宇宙의 法則이 不變하는 것 自體를 信으로 보았다.

宇宙의 生成法則으로 태어난 人生이 '信'이라는 法則을 지키지 않는다면 自然에서 淘汰됨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다음 宗教的 信을 論하자면 有神論的 宗教의 경우 信仰의 對象은 信의 所産이라 하겠다. 믿음이 없는 者 神도 絶對者가 없고 믿음(信)이 篤實할 때 그만큼 神은 偉大하게 나타나 나를 굳세게 한다.

無神論的 宗教의 경우 信仰의 對象은 없으나, 先大覺者 佛을 믿고(信) 欲界를 超越할 때 極樂을 體驗한다는 희망이 있다.

有神 無神宗教의 공통 目的은 마음의 平和로 幸福한 삶을 실현하자는데 있건만, 無信 俗世人보다 欲의 亂立이 더 어지러운 宗教人들 大悟覺醒 있기를 바란다.